



신세계
롯데 센터점
인수
L1

metro®

Life

건기식부터
사우나 체험까지
일상케어 경쟁
L2



푸른 자연에 현대적 감각 더해... 걷는 즐거움 가득한 정원

아파트의 미학(美學)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의정부 신곡동 재개발로 조성된 단지
주변 녹지시설, 교통·생활 인프라 풍부

깔끔하고 단정한 조경에 예술감각 더해
녹지 사이 다채로운 조형물·쉼터 배치

중앙 수경시설 벽 따라 산책길 마련해
단차, 곡선 배치로 다채로운 풍경 연출
놀이터, 비오톱 등 자연친화적 공간도

수경시설 위에서 내려다본 쉼터. 기울어진 차양과 세로 살
구조물 아래에 주황색·초록색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했다.
/성채리 기자



경기 의정부는 탄탄한 생활 기반 위에 재개발로 새 주거지를 더해가고 있다. 의정부역 동쪽 신곡동에 들어서면 원도심 풍경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도로를 따라 상가가 늘어서 있고, 그 뒤로 학교와 주택가가 자리한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를 바로 앞에 둔 신곡 단지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는 신곡동 435-3 일대 잠암생활권3구역을 재개발해 조성됐다. 시공은 DL건설이 맡았다. 지하3층~지상 최고35층, 6개 동, 총 815가구 규모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1단지 641가구와 2단지 174가구로 나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2~84㎡ 407가구다.

입지 강점은 가까운 학교와 생활시설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의정부초등학교가 있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과 롯데마트 잠암점 등 대형 쇼핑시설도 주변에 있다.

주변 녹지 공간도 다양하다. 추동근린공원과 발곡근린공원,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있어 산책과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의정부정보도서관과 의정부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 의정부유지대학교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의료시설도 이용하기 좋다.

단지에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통해 역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GTX-C가 개통되면 의정부역을 통한 강남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차량으로는 동부간선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곡동 일대에서는 잠암2구역과 잠암5구역 등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원도심 생활권에 새 아파트가 더해지면서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장, 북카페 등이 있다.

단지 조경은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돋보인다. 녹지 사이에 조형물과 쉼터를 배치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입구 주변 잔디밭에서 이형욱 작가의 '시퀀스(Sequence)'가 입주주민을 반긴다. 파란색과 흰색, 금빛을 조합한 조형물들이 간격을 두고 놓여 있다. 둥근 공과 고리, 길쭉한 기둥, U자 형태를 서로 다르게 쌓거나 연결한 모습이다. 같은 색과 무늬가 반복되지만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 길을 따라 놓인 작품들을 비교하며 걷는 재미가 있다.

단지 중심에는 수경시설이 조성돼 있다. 둥근 벽 아래 연못으로 둘러싸인 구조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크고 작은 자연석과 둥근 자갈을 놓고, 물가에 식물을 심었다.

주변 화단은 서로 다른 색으로 가을 분위기를 드러낸다. 붉은색과 짙은 갈색의 식물들이 섞여 있고, 가느다란 풀들이 그 사이를 채운다. 그 위로는 배롱나무와 팽나무, 소나무 등 키 큰 나무들이 가지를 펼친 형태다. 수경시설 옆 산책길도 완만하게 굽어진다.

석재 벽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무편을 간 데크에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다. 데크 가장자리에는 얇은 수로를 등글게 조성했다. 가까이에서 물과 나무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리다.

높이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바뀐다. 수경시설

위쪽에서는 물가의 돌과 화단, 산책길이 키 큰 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보인다. 내려가는 계단도 둥근 모양으로 꾸며 곡선 디자인이 반복된다.

아래쪽에는 차양을 갖춘 쉼터가 따로 있다. 가느다란 기둥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차양을 받치고, 한쪽 면에는 세로 살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웠다. 차양과 세로 살 틈으로 들어온 햇빛은 바닥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든다.

동 출입구의 회색 포장길 양옆에는 낮은 풀을 심고, 그 사이에 줄기가 곧게 뻗은 나무를 배치했다.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야외 공간도 마련했다. 동 사이에 이동식 네트를 설치해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단지 한쪽에는 작은 생물의 서식공간인 '육생비오톱'을 만들었다. 여러 그루의 나무 아래 들쭉날쭉한 돌을 쌓았다. 매화나무, 산수유, 산철쭉 등 식물을 통해 계절마다 바뀌는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산책길 옆 쉼터는 차양 아래 등받이 벤치를 여러 방향으로 놓아 서로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했다.

놀이터도 공간마다 다른 모습이다. 1단지에서는 각진 면과 선명한 색상을 활용한 놀이시설이 눈길을 끈다. 놀이터 주변에는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원뿔 모양의 나무를 심어 식재에도 변화를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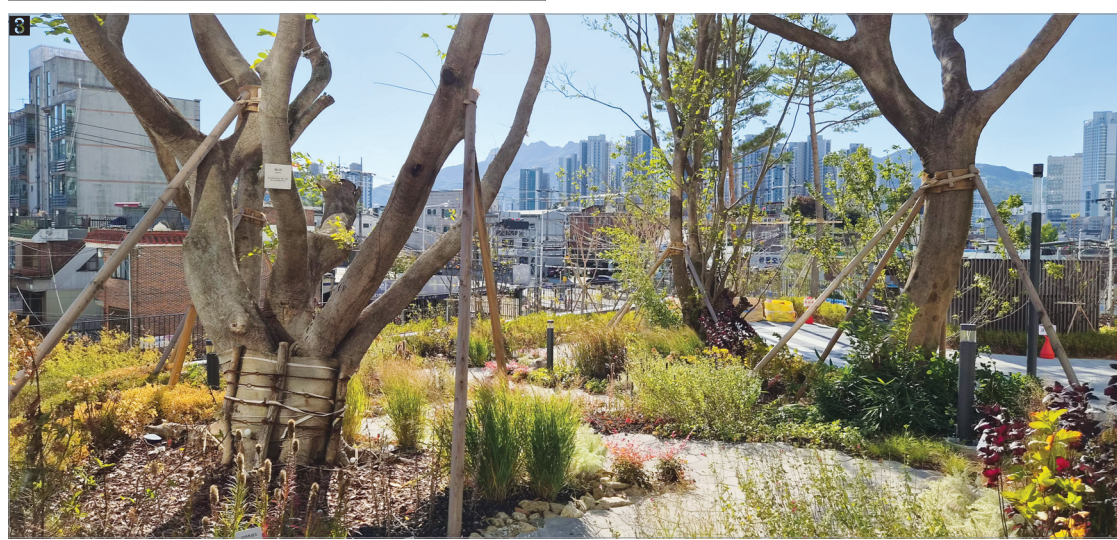
2단지 놀이터는 통나무 기둥과 초록색 시설물로 꾸며 자연친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낸다. 나무 색과 잎을 닮은 색상이 주변 수목과 어우러진다. 한쪽에는 작은 모래놀이 공간도 보인다. 나무 데크로 가장자리를 두르고, 안에 모래를 채웠다. 아이들이 직접 모래를 만지고 쌓으며 놀 수 있는 자리다.

1단지와 2단지 사이에서는 유치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단지 앞 의정부초등학교에 유치원까지 더해지면 보육·교육시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가까운 통학 거리와 일상에서 뛰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뒷받침한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수경시설 아래로 이어진 연못. 2통나무 기둥과 초록색 시설물로 꾸민 자연친화놀이터. 3쉼터에서 내려다본 정원.

메트로 한줄뉴스



▲11월 A매치 명단 발표... '은퇴 소동' 96라인·손흥민 모두 선발
▲남자 U-19 축구대표팀, 중국 판다컵·일본 SB S컵 연속 출전 /사진 뉴시스

▲신상훈·정찬민·장유빈, KPGA 렉서스 마스터즈서 대상 경쟁
▲신해철·유재석·블랙핑크 문화훈장... 유해진·장항준, 대통령 표창

▲AI 시대 출판업계, 위기냐 기회냐... 2026 아시아 출판 주간
▲동학농민혁명 고부농민들의 결기·항쟁, AI 영화로 제작